

때, 그는 병합을 도운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국가의 주민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 그러나 조만간 기회가 허용된다면, 병합을 도운 자들도 약화시켜야 하며, 병합된 국가의 무력을 원래 자기 나라 출신의 군대에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속된 도시에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우리의 선조들과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피스토이아는 파벌을 조장해서 다스리고,²⁾ 피사는 성곽을 사용해서 통치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어떤 도시에서는 신민들 간에 불화를 조장하여 그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에 어느 정도의 평화적 균형이 유지되었던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³⁾ 오늘날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내 자신의 견해로는 분열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파벌로 얼룩진 도시는 적군에게 위협을 받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 이유는 세력이 약한 파벌은 항상 침략자와 결탁하는 데에 반해 다른 파벌은 이를 저지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인들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들에 (생각컨대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겔프 파와 기벨린 파라는 두 파벌을 조성했다.⁴⁾ 비록 두 파벌 사이의 유혈참극은 용납하지 않았지만, 베

2) 115면의 주 3)을 보라.

3) Lodi의 평화조약(1454)으로부터 1494년까지를 말한다.

4) 중세 교황과 황제간의 갈등에서 Guelph 파는 교황당이었고 Ghibelline 파는 황제당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초기에 전자는 루이 12세를 지지하는 자들을, 후자는 막시밀리안 황제를 지지하는 자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네치아인들은 그들 사이에 교묘하게 불화를 조장함으로써 시민들이 파벌 싸움에 몰두하여 자신들에게 단합하여 대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베네치아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바일라에서 패배하자마자, 일부 도시들⁵⁾은 대담하게 반란을 일으켰고, 베네치아인들로부터 본토에 있는 베네치아 제국의 모든 영토를 박탈했다. 따라서 분열정책은 군주의 유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강력한 군주국은 그러한 분열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열정책은 속민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평화시에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한 정책의 어리석음은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적을 극복하는 것은 힘을 보태준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공격을 극복할 때, 군주가 위대해진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운명의 여신은 특히 신생 군주의 권력을 증대시키기를 원할 때 (신생 군주는 세습 군주보다 명성을 얻어야 할 더 많은 필요가 있다), 적의 성장을 조장하고 그로 하여금 적과 싸우도록 만드는데, 그 결과 그는 적을 격파하고, 마치 그의 적이 그에게 사다리를 제공한 것처럼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된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적대적인 세력들을 부추길 수 있는 기회라면 무엇이든지 교묘하게 활용함으로써 정작 그가 그들을 격파했을 때, 그의 명성과 권력이 더욱 증대하게끔 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5) Brescia, Verona, Vicenza 및 Padua.

로¹⁰⁾ 무언가 비상한 업적을 성취하면 그는 화제가 될 만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보상하거나 처벌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군주는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비범한 재능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립은 적을 만든다

군주는 그가 진정한 동맹이거나 공공연한 적이면, 곧 그가 주저하지 않고 한 군주를 다른 군주에 반대하여 지지하면, 높은 존경을 받는다. 이 정책은 항상 중립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더 낫다. 만약 인접한 두 명의 강력한 군주가 전쟁을 하게 되면 궁극적인 승자는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경우에도 한쪽 편을 들어 강력하게 싸우는 것이 항상 보다 더 현명한 정책이 된다. 왜냐하면, 우선 서로 싸우는 군주들이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경우,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당신은 승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패자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것이다). 이 경우 당신이 무방비상태이고 우방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승자는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를 돕지 않았던 신뢰하기 어려운 자를 동맹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자는 당신이 그를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동 운명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호의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10) 군사적이지 않은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아카이아인들은 중립을 지키지 말라고 충고받았다

고대에 안티오코스가 아이톨리아인들의 요청으로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리스에 침입한 적이 있다.¹¹⁾ 안티오코스는 로마인들 편이던 아카이아인들에게 사절을 보내 중립을 지킬 것을 제의했다. 반면에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무기를 들 것을 권유했다. 이 문제가 안티오코스 사절이 중립을 지킬 것을 권유했던 아카이아인들의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말한 것, 즉 당신들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당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없다고 말하겠다. 일단 도움과 위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신들은 다만 승자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이다.”¹²⁾

적극적인 동맹은 친선을 획득한다

당신의 우방이 아닌 군주는 항상 당신이 중립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반면에 당신의 우방인 군주는 항상 당신이 무기를 들고 지원하기를 원한다. 우유부단한 군주는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통상 중립으로 남아 있고 싶어하는데, 이는 빈번히 파멸의 원인이 된다. 그렇지만 당신이 강력하게 한쪽을 지원하여 그가 승리했다고 가정하자. 비록 그가 강력해졌고 당신은 그의 처분에

11) 21-22면을 보라.

12) Livius, XXXV, 49. 인용문의 첫 구절은 Liviús의 원문과 약간 다르다.

내맡겨졌지만, 그는 당신에게 신세를 졌고 둘 사이에는 우호관계가 성립되었다. 인간은 결코 그러한 상황에서 그토록 배은망덕하게 당신을 공격할 만큼 파렴치하지 않다. 게다가 승리가 승자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동해도 무방할 정도로, 특히 정의롭게 행동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는 법이다. 그러나 당신이 도운 군주가 패했을지라도 그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고 가급적 당신을 돕고자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다시 제기할 수도 있는 운명의 동맹이 된다.

악한 군주와의 동맹은 유익할 것이다

두번째 상황의 경우에도 (서로 싸우는 군주들이 둘 다 약해서 당신에게 위협이 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개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군주의 도움을 받아 한 군주를 몰락시키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다른 군주가 현명한 인물이었다면, 그는 상대방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어쨌든 당신이 힘을 합쳐 이김으로써, 당신의 도움을 받은 군주는 당신의 처분에 맡겨진 셈이 된다(그리고 그가 당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적을 격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코 강력한 세력과 자발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

여기에서 군주는 이미 말한 대로 상황에 의해서 강요당하지 않

는 한,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강력한 군주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와 함께 승리를 거두면, 당신은 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니, 군주란 모름지기 다른 세력의 처분에 맡겨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베네치아인들은 밀라노 공작¹³⁾을 공격하려고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이 동맹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로써 몰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황과 스페인 왕이 롬바르디아를 공격했을 때,¹⁴⁾ 피렌체가 처했던 상황처럼 동맹을 맺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 통치자는 앞서 말한 이유에 따라 동맹에 참여해야 한다.

차악(次惡)을 선으로 받아들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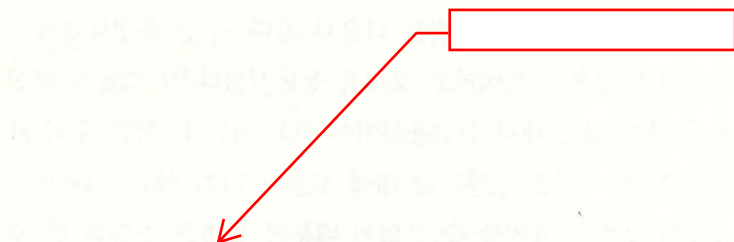
어떤 정부도 안전한 정책을 따르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행위는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물의 도리상 하나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면 으레 다른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은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가장 해악이 적은 대안을, 따라야 할 올바른 대안으로 선택한다.¹⁵⁾

13) Ludovico Sforza. 24-25면을 보라.

14) 1512년.

15) 「로마사 논고」, 제1권 제6장을 보라.

제13장 원군, 혼성군, 자국군



원군으로부터 겪은 근래의 위험한 사례들

원군이란 당신이 외부의 강력한 통치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을 돕고 방어하려고 파견된 군대인데, 이 또한 용병처럼 무익한 군대라고 말할 수 있다. 원군은 최근에 교황 율리우스에 의해서 이용된 적이 있다. 교황은 자신의 용병부대가 페라라 전투¹⁾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왕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울 군대를 파견하게 함으로써 원군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군은 그 자체로서는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원군에 의존하는 자에게 거의 항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패배하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면 당신은 그들의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고대 역사에서도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지만, 나는 근래에 일어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사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의 결정은 너무나 성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페라라를 얻기 위해서 외국 군주²⁾의 수중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다니! 그러나

1) 1510년. 13편을 보라.

2) 곧 Ferdinand the Catholic.

그는 운이 좋아서 그릇된 정책에서 초래되는 결과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요청한 원군들이 라벤나에서 패주했을 때,³⁾ 스위스 군이 도착하여⁴⁾ (그와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승자⁵⁾를 몰아냈고, 그 결과 그는 (도망가버린) 적들의 수중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게다가 승리를 거둔 자는 원군이 아니라 다른 군대⁶⁾였기 때문에, 원군의 처분에 내맡겨지는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렌체는 전혀 무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사를 포위하기 위해서 1만 명의 프랑스 병력을 끌어들이었다.⁷⁾ 이 정책으로 인해서 피렌체는 역사상 겪은 것 중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련을 맞이했다.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노플의 황제⁸⁾는 동족인 그리스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1만 명의 투르크 병력을 유치했는데,⁹⁾ 전쟁이 끝난 후¹⁰⁾에도 투르크 군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를 발단으로 해서 그리스는 이교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¹¹⁾

3) 1512년 4월 11일.

4) 1512년 5월 말경.

5) 프랑스 군을 말한다.

6) 스위스 군을 말한다.

7) 1500년.

8) 비잔틴 황제인 Joannes Cantacuzenus.

9) 1341년에 Joannes Cantacuzenus의 추종자들과 Joannes Palaeologus의 추종자들 간에 발발한 내전 기간을 말한다.

10) 1347년.

11) 그 지배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1453년에 완성되었다.

원군으로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면 원군을 사용해야 한다. 원군은 용병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원군을 사용하면 자멸은 확실하다. 원군은 단결된 세력이며 타인¹²⁾에게 복종하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용병은 승리하더라도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고, 큰 기회를 필요로 한다. 용병은 당신이 고용하고 보수를 주기 때문에 단결된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장군으로 당신이 임명한 외부인은 즉각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입힐 정도의 권위를 구축하지 못한다. 예컨대 용병의 경우에는 그들의 비겁함이나 전투를 기피하는 태도가 위험하고, 원군의 경우에는 그들의 능숙함과 용기가 위험하다.

현명한 군주는 항상 이런 군대를 쓰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인민들로 구성된 군대를 양성한다. 그들은 외국 군대를 써서 정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군대로 패배하는 것을 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군을 써서 얻은 승리를 진정한 승리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병과 원군에 대한 체사레 보르자의 경험

이 점에 관해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체사레 보르자와 그의 행

12) 곧 원군을 보낸 지배자.

적을 추천한다. 공작은 원군을 써서 로마나 지역을 침공했고, 그들과 더불어 이몰라와 포를리를 점령했다.¹³⁾ 그러나 그는 그들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용병을 기용했다. 그는 용병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르시니 파와 비텔리 파의 용병에 의존했던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 그 가치나 충성심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용병을 해체한 다음에¹⁴⁾ 자신의 사람들¹⁵⁾로 구성된 군대를 편성했다. 이 세 종류의 군대의 차이는 공작이 단지 프랑스 군대를 사용했을 때와 오르시니 파 및 비텔리 파의 군대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서 군사적으로 자립했을 때, 그가 누렸던 명성을 각각 비교해보면 명백하다. 그가 자신의 군대를 명실상부하게 장악한 것을 만인이 보았을 때, 그는 더 높은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존경을 받았다.

시라쿠사의 히에론 역시 용병을 폐기했다

나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인용하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라쿠사의 히에론을 이미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¹⁶⁾ 그의 일화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라쿠사인들이 그를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한 후, 그는 그 용병들이 우리 이탈리아의 용병대와 똑같은 부류의 무용한

13) 1499년 11월과 1500년 1월 사이에.

14) 그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나머지 부하들을 손에 넣었다(49-51면을 보라).

15) 로마나 지방으로부터 충원된 군대; 그러나 아마도 특히 장군이 제거된 Orsini 파의 군대와 Vitelli 파의 군대를 말하는 것 같다(49-52면을 보라).

16) 43-44면을 보라.

존재라는 점을 즉각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체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참살했다.¹⁷⁾ 그 후에 그는 외국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군대로 전쟁을 수행했다.

다윗 왕

나는 또한 구약¹⁸⁾에 나오는 적절한 예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팔레스타인의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제의했을 때, 사울은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와 갑옷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입어본 후, 그것을 입고는 잘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투석기와 단검을 가지고 적과 대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사양했다. 요컨대, 타인의 무기와 갑옷은 당신에게 잘 맞지 않거나,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당신의 움직임을 제약할 뿐이다.

용병을 쓰면서 프랑스가 저지른 어리석음

(루이 11세의 부친인) 샤를 7세는 행운과 용맹에 의해서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킨 후,¹⁹⁾ 프랑스를 자국군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제도를

17) 아마도 마키아벨리는 히에론이 용병대장들만을 살해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18) 「열왕기 상」, xvii, 38-40.

19) 백년전쟁의 끝인 1453년.

도입했다. 그의 아들 루이는 나중에 보병을 폐지하고²⁰⁾ 스위스 군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 커다란 실수는 다른 실수들과 결부되어 (이제 와서 명확해진 것처럼) 프랑스 왕국을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몰아넣었다.²¹⁾ 스위스 군의 입장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나머지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보병을 해체하고 그의 기병을 외국군대에게 의존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기병은 스위스 보병과 연합하여 싸우는 데에 익숙해져서 스위스 군 없이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랑스 군은 스위스 군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스위스 군이 없는 프랑스 군은 적에게 허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프랑스 군은 일부는 용병으로, 일부는 자국군으로 구성된 혼성군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한 혼성군이 순수한 원군이나 용병보다 훨씬 더 낫기는 하지만, 순수한 자국군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이상의 예로써 충분하다. 왜냐하면 샤를 왕이 만들어놓은 군제가 발전했거나 적어도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프랑스 왕국은 무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견해야 하는 용병의 위험

그러나 인간이란 판단력이나 선견지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소모성 열병을 두고 말한 것처럼,²²⁾ 일견 매력있게 보

20) 사실상 이는 일찍이 1445년과 1448년 사이에 행해졌다.

21) 마키아벨리는 프랑스 군이 1512년에 이탈리아로부터 쫓겨난 것을 말하고 있다.

22) 22면을 보라.

이는 정책을, 그 속에 있는 독성²³⁾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한다. 그러므로 일찍이 초기 단계에 독성을 간파하지 못하는 군주는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은 단지 소수에게만 주어질 뿐이다.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된 단초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고트 족이 용병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²⁴⁾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로마 제국의 힘의 원천을 고갈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출된 모든 활력을 고트 족이 흡수했던 것이다.

자신의 군대가 없는 군주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나는 어떤 군주국이든 자신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다고 결론짓겠다. 오히려 그러한 군주국은 위기에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에 의존해야 할 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무력에 근거하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취약하고 불안한 것은 없다”²⁵⁾라는 격언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이란 자국의 신민 또는 시민 아니면 자신의 부하들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며, 그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용병이나 원군이다. 자신의 무력을 조직하는 올바른 방법은, 내가 이미 인용한 네 사람²⁶⁾이 사용한 방법을 검토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친인 필리포스를 비롯한 다른 많은 통치자들

23) 곧 숨겨진 결함들을 말한다.

24) 376년 Valens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382년에 Theodosius 대제에 의해서.

25) Tacitus, *Annals*, XIII, 19. 위의 인용구는 타키투스의 기술과 약간 다르다.

26) 곧 체사레 보르자, 히에론, 샤를 7세 및 다윗을 말한다.

과 공화국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무장하고 조직한 방법을 이해하면,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사용한 방법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